

# 한국GM 작년 9000억 적자... 4년간 누적 손실 3兆

지난해 3분기 기준 '자본잠식 상태' 매출추정치 10.7조·9년 만에 최저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요청한 한국지엠(GM)이 지난해 9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누적 손실은 3조원에 육박한다.

1일 정부와 산업은행에 따르면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한국 정부에 대규모 지원을 요청하면서 지난해 실적 추정치를 제시했다. 비상장사인 GM은 통상 4월 중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정 실적을 공표해왔다.

GM은 지난해 순손실이 9000억원에 달한다고 정부와 산은에 설명했다. 이는 2014년 3534억원 순손실을 낸 이후 2015년 9868억원, 2016년 6315억원에 이어 4년 연속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손실 규모는 2015년보다는 줄어든 수준이지만 2016년과 비교해서는 확대했다. 매출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감소했다.

이처럼 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한국지엠



한국지엠 부평공장 서문 앞에서 한국지엠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자본잠식 상태로 들어섰다. 부채비율은 2014년말 435%에서 2015년 1062%, 2016년말 8만4980%로 폭증한 바 있다.

지난해 영업손실 추정치는 8000억원이다. 2014년 148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후 매년 적자를 이어오다 지난해 최

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매출 추정치는 10조7000억원이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9조5325억원)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정부와 산은은 한국지엠이 이처럼 부실화한 첫 번째 원인으로 GM의 세계 시장 전략 수정을 꼽았다.

GM이 중국과 북미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유럽과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주요 시장에서 줄줄이 철수했고, 계열사 오벨 등을 매각하면서 한국지엠의 수출 판로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2013년 쉐보레 브랜드를 유럽시장

에서 철수시킨 것은 한국지엠에 직접적 타격을 줬다. 실제 한국지엠의 유럽 수출 물량은 2012년 13만7750대에 달했지만, 2013년 6만1954대로 줄어든 이후 지난해 205대로 줄었다.

정부·산은은 한국지엠의 매출 원가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로 GM 본사로부터의 높은 차입이자율(4.8~5.3%)과 연구개발(R&D) 비용 및 이전 가격 등 불명확한 업무 지원비 부담을 꼽았다.

2016년 기준 한국지엠의 매출원가율은 93.1%로 현대차(81.1%), 기아차(80.2%), 르노삼성(80.1%), 쌍용차(83.7%)와 상당한 격차를 나타낸다. 지상옥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시한 GM 북미 지사의 매출원가율 84.0%, GM 자동차 부문의 전체 매출원가율 86.9%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현재 정부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 '3대 원칙' 하에 GM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학원·인강보다 공공기관 훈련이 취업률 ↑”

폴리텍 대학·장애인고용공단 등 직업훈련 취업률 9.4%p 더 높아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따라 취업률 제고 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폴리텍대학·장애인고용공단 등 공공훈련기관이나 대학에서 실시한 직업훈련은 청년취업률을 높였으나 민간 기관이나 온라인을 통한 직업훈련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김남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충 한양대 경제학부 부교수 등이 1일 발표한 '직업훈련이 청년취업률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공공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직업훈련에 참여한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취업률이 평균적으로 9.4%포인트 높았다. 대학에서 실시한 직업훈련도 청년취업률을 7.9%포인트 높이는 데 기여했다.



/오픈에즈

다만 민간훈련기관이나 온라인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 취업률 제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4년제 대학졸업 청년 3만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따라 취업률 제고 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결론냈다.

보고서는 한국폴리텍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장애인고용공단 등 공공훈련기관 및 학원과 같은 민간훈련기관, 대학(비학위 과정), 통신(온라인) 강좌 등

네 가지의 직업훈련을 비교했다.

김남주 부연구위원은 "학원·온라인 강의 등은 수강생이 자율적으로 등록해 직업훈련에 참여하기 때문에 훈련기관이 수강생을 관리할 유인이 별로 없다"며 "공공기관이나 대학은 훈련 기간이 정해져 있고 훈련 참가자들이 선발되는 측면이 있어 수강생들의 의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공공훈련기관과 대학 직업훈련간 취업률 제고효과를 비교해 두 방식 간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했다.

그 결과 공공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4년제 대졸자와 유사한 특성의 청년이 대학 직업훈련을 받았을 경우 취업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 부연구위원은 "직업훈련 실시주체에 따라 청년 취업률 제고 효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실시주체별 프로그램 내실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 은행들 작년 순이익 11조... '7년 만에 최대'

전년비 352.4% ↑...이자이익 견인

국내은행들의 지난해 순이익이 11조원을 웃돌면서 2011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예대금리 차이가 확대됐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면서 대손비용은 크게 줄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1조2000억원으로 전년 2조5000억원 대비 352.4% 증가했다.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8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4% 늘었고, 특수은행은 2조8000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7조2000억원으로 전년 43.9% 감소했다.

특히 2016년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대손비용이 컸던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컸다.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3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5% 늘었다. 금리가 오

르면서 순이자마진(NIM)이 2016년 1.55%에서 2017년 1.63%로 개선됐기 때문이다.

생산성 지표도 좋아졌다.

1인당 당기순이익은 1억1000만원으로 2016년 2000만원 대비 약 5배가 넘게 증가했다. 1인당 총자산은 209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6% 늘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가운데 명예퇴직 등으로 임직원 수가 감소하면서다.

자산건전성은 개선 추세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18%로 전년 말 대비 0.24%포인트 낮아졌다. 보수적인 여신 운용 등으로 신규부실이 크게 감소한 데다 2016년에 부실채권이 대규모로 정리된 데 주로 기인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5.21%, 13.09%, 12.53%로 나타났다. 전년 말 대비 각각 0.40%포인트, 0.59%포인트, 0.53%포인트 상승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고성능차 사업에 모든 역량 쏟아 부을 것”

>> 1면 '현대차 고성능차'서 계속

'i30 N TCR'은 판매 개시 전에 시범 출전한 세계적인 국제 서킷 경주 대회에 두 번이나 우승해 성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으며, 오프로드 랠리 부문에서도 '월드랠리챔피언십(WRC)'에 데뷔 첫해 우승을 비롯 올해 2월까지 총 8회 우승하는 등 전 세계 모터스포츠 팬들에게 현대차의 높은 기술력을 알리고 있다.

또 고성능차 사업과 모터스포츠 사업이 하나의 사업부로 합쳐짐에 따라 '퍼포먼스' 관점에서 브랜드 연결성이 강화되고

객들에게 일관성 있게 현대차의 기술력이 전파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슈미에라 부사장은 "현대차가 개발한 i30 N과 경주용차에서 보여준 기술력은 이제 막 고성능차 사업을 시작한 회사에서 만든 차라고 하기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며 "현대차 고성능차 사업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독일 국적인 토마스 슈미에라 부사장은 1987년 BMW 차체설계 CAD 엔지니어로 입사한 이후 구매, 품질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다.

/양성운 기자

## 헌법재판소 “수능-EBS 70% 연계는 합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의 70%를 한국교육방송(EBS)과 연계해 출제하는 정부의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수험생 권모씨 등이 수능시험 문제 70%를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 출제한다는 내용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이 자유로운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고 1일 밝혔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작년 3월 28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8학년도 수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EBS와 연계해 출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올해 고1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수능에서도 EBS 연계 출제 방침을 지난 28일 밝힌 바 있다.

재판관들은 수능시험을 EBS와 높은 비

율로 연계하면 사교육 과열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고 봤고, EBS 외에 사교육이나 다른 학습방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중요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EBS 교재를 별도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수능시험을 치르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EBS 교재를 공부해야 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벼워 청구인들의 인격발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hys@